

##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정례회)

#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30일 (목)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
3.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4.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   |     |
|---|-----|
| ○ 의사보고 .....  | 2면  |
|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09) .....                                 | 2면  |
| 2.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1) ..                                | 2면  |
| 3.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0) .....                                      | 3면  |
| 4.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2) ..                               | 6면  |
| 5.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 ..... | 7면  |
| ○ 5분 자유발언 (김광운 의원) .....  | 10면 |
| ○ 5분 자유발언 (유인호 의원) .....  | 11면 |
| ○ 당선인사(제2대 충청광역연합장) .....   | 13면 |

(14시 05분 개의)

○의장 노금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보고

○총무담당관 김미희 총무담당관 김미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소관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김응규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까지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김광운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노금식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09)

(14시 07분)

○의장 노금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중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연합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1)

### 3.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0)

(14시 08분)

○의장 노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형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는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은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노금식 구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영환 연합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연합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오늘 제가 연합장으로서 의원님들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은 내용보다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연합장이 된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두고두고 뜻 깊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섰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기 계신데 누가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도 지금 잘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5년도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십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했고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쳐서 1996년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 가운데 하나는 짧은 지식이지만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군과 조우를 해서 싸웠는데 그것이 충청북도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탄금대에서 관군의 장수인 신립과 일본장수들이 만나서 싸웠는데 반나절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군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화살과 창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기마병들이었고 일본은 그때 화승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00명의 군인들이 남한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뒤에 300년이 지난 1894년도에 갑오농민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고부에서 봉기해서 전주성을 치고 공주성으로 진격하던 우리 농민군들이 우금치마루에서 일본군

과 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일본군은 2개 중대의 병력이었는데 우금치마루 위에 기관총과 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며칠을 건디지 못하고 농민군 수만 명이 죽었고 그 피가 금강을 덮었다는 신동엽의 시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300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1910년의 한일합방을 거쳐서 35년의 압제가 있었고 1950년도에 전쟁이 있었고 1960년까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총 한 자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두 번의 전쟁 3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문약했고 사농공상이 있고 양반과 노비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것이 1970년대 일이니까 54년 만입니다. 54년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대한, 부강한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을 꽃 피우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한두 사람의 지도자와 한두 정치세력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탕에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 주자학의 그런 공리공론에서 벗어나서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혁신과 도전을 계속한 끝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이 충청도에 와서 충청연합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농촌에 농민이 없습니다. 일할 농민이 없는 농촌을 가지고 있고 공장은 들어오지만 근로자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이 없고 학교에는 학생이 없어서 교사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그런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에는 연구원이 없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이 둔화해서 이제는 미국 성장률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닥쳐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도지사를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지난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충청광역장이 되면서 충청도가 대한민국 개혁의 테스트베드가 될 방법이 없는가, 충청북도를 포함한 충청도 광역의회 내에서 이런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그 해답을 찾고 개혁을 실행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를 충청광역연합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앞장서는 그런 광역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노베이티브 프락시스(Innovative Praxis)’라는 그런 개념을 제  
 토정철학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농촌에 부족한 농부를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총원하는 도시농부, 또 그들을 공  
 장에 공급하는 도시근로자, 그리고 의료비를 후불하는 의료비 후불제, 노인들이 일  
 하면서 복지를 받는 ‘일하는 밥퍼’, 또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  
 는 기쁨’ 등 많은 일하는 복지정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성과는 아직은 미진하지만 그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도와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개혁정책들을 여기에서 잘 추스르  
 고 충청광역권이 대한민국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다른 도에서 또 서울에서, 경  
 기도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아니면 충청도를 와서 이 개혁을 공부할 수 있는 선도하  
 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광역장으로서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연합장과 함께 충청광역권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금식** 김영환 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연합장님께서서는 초대연합장으로서 광역연합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 4.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102)

(14시 21분)

○**의장 노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김선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  
 회 기간 중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본 동의안은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사무의 위탁기  
 간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충청광역연합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연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권 광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사업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 상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  
 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노금식 김선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5.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

(14시 24분)

○의장 노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년온천이 살아 숨쉬는 충남 아산시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금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최민호 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의 핵심의제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다극형 국가균형성장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실질적 국가사무 이양과 안정적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이 특별자체단체로서 정책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국가 이양사무 확대 및 재정기반 보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충청광역연합은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초광역 행정의 대의명분은 충분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설계가 미흡하여 연합의 동력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 제한적인 국가 이양 사무.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는 광역 간선 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1건에 불과하며,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주로 부수적인 사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경제, 교통, 환경, 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 이양이 미흡하고, 연합은 지방자치법상 규약에 의해 사무를 결정하는 단순 협의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불안정한 재정 기반과 사업 추진력 미약.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은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들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세입 기반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금과 같이 국가 이양 사무나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권한은 공허하며, 특히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적 관점의 투입이 필수적인 초광역 협력사업을 불안정한 분담금 구조로 추진하는 것은 연합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력과 실행력을 미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셋,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한계.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구조는 재원을 총당하는 4개 구성 자치단체에 종속되는 경향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이 중심에서 멀어져 정책적 영향력이 미약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연합이 협의에 따른 규약으로 사무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에서 비롯되어,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단순히 충청광역연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초광역적 파급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라.

하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 용도가 명확한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등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중앙정부가 보장하라.

하나, 충청광역연합이 특별자치단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노금식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김광운 의원)

(14시 32분)

○ **김광운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노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인 CTX의 지난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은 후속 절차들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CTX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천안역까지 이어지는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입니다.

본 노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개통될 경우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충청권의 주요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청권 전체가 세종의 중앙행정, 대전의 연구개발특구, 청주의 바이오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 등 행정·산업·교통의 충청권 핵심 기능들이 철도를 매개체로 하나의 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변 광역권과 경쟁·대응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형 다핵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관련 기관 간 협업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충청권 전반의 기업 입지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은 CTX 개통을 통해 단순한 이용 편의성 향상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외 교류의 관문 기능이 강화되어 중부권 거점 공항이자 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는 본 사업이 단지 지역의 요구에 머무는 사업이 아니라 경제성은 물론, 국가 국토정책 방향과 민간투자 방식의 실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충청권이 새로운 광역 인프라 추진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상징성이 큼니다.

이제 관건은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의 후속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

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8년 착공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 공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수립 등 남아 있는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충청권은 개별 시도의 유불리를 앞세우기보다, CTX 전체 노선의 완결성과 광역적 효과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CTX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충청권 공동 대응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CTX의 안정적인 착공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청권의 입장이 분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청권이 공동으로 정부에 CTX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CTX는 어느 한 시·도의 교통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 아래 지방분권을 선도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 초광역 공동 인프라이며, 충청광역연합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협력이 아닌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가 정책 공조와 대정부 협력을 더욱 강화해 CTX를 반드시 성공적인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금식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유인호 의원)

(14시 38분)

○의장 노금식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노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인적 교체기를 맞아 행정 공백을 막고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쓰며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연합은 성과를 쌓아야 할 골든타임에, 오히려 공들여 세운 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제2대 연합장 선출과 함께 4개 시도 파견 인력이 대거 교체될 예정으로, 연합 사무의 연속성이 끊길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합의 사무는 단순한 협의를 넘어 지자체 위임사무와 국가 사무를 포괄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인수인계가 부실하면 책임 소재와 경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은 회피와 지연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조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충청광역연합은 핵심적인 실행 플랫폼입니다. 충청권이 흔들리면 국가 전략의 실행력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행안부는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 보도했습니다.

충청이 초광역 행정의 선도 모델로 남으려면 이제 최초 출범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지속 운영의 품질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행정 지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흔들림 없는 국가균형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수인계를 의무화된 법적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연합의 중장기 과제, 국비 사업과 위임사무 처리 기준 등을 담은 표준 인수인계서 작성을 제도화하여, 행정이 특정 개인의 경험이 아닌 축적된 시스템에 의해 승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파견 중심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인사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핵심 직위에 대해서는 최소 근무 기간을 보장하거나, 인력 교체 시 중첩 근무 기간을 의무화하는 등 행정 노하우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인사 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은 단순히 시·도 간 사업을 조정하고 중계하는 기구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인 초광역특별협약과 초광역특별계정을 기반으로 충청권 사업을 하나로 묶어 중앙정부 예산을 일괄 지원받는 '협약 패키지 지원'을 선점하여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대전-충남 통합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설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공식화한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충청권 행정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변수입니다. 이 통합의 추진으로 발생할 연합 사무 재설계, 대표성 확보, 자원 분담 등 어떤 변화 속에서도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성장의 실행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사람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이 승계되고, 책임이 이어지며, 재정이 뒷받침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연합장과 파견 인력이 바뀌어도, 충청광역연합의 방향과 성과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 원칙을 제도로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초광역 행정임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금식**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 당선인사(제2대 충청광역연합장)

(14시 43분)

○**의장 노금식** 다음으로 제2대 충청광역연합장으로 당선되신 최민호 세종시장님의 당선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충청광역연합장 최민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광역연합의회 노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제2대 충청광역연합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선은 우리 충청을 향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하며 2025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이라는 지방자치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충청권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큼니다.

2026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역소멸 문제, 정치 양극화 문제 등 대내외적인 위협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맞닥뜨리는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넘어에 더 넓은 가능성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존경하는 김영환 연합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쌓여진 협력의 틀과 제도적 기반 아래서 내년에는 광역연합이 현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 발맞춰서 충청권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광역연합의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중앙사무의 추가 이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산업의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초광역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정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미래 핵심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연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출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모쪼록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금식** 최민호 시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올 한해 여러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연합의회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 온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던 만큼 그 의미와 무게 또한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의견의 차이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모든 순간마다 충청권 주민을 향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 전반을 성실히 뒷받침해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과 정책 집행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오늘 이 자리까지 원만히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힘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로운 한해에도 충청권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협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 ○출석 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노금식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 ○청가 의원(2인)

## ○ 의회사무처

처                      장        이재만

총무담당관 김미희

## ○출석 공무원

## 〈충청광역연합〉

연 합 장 김영환

사무처장 이수현

초 광 역 자 치 과 장 박승일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 ○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노금식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 2.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노금식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 3.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노금식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 4.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노금식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5.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노금식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